

쯔쯔가무시증이란?



- 쯔쯔가무시증은 연중발생하나, 주로 9월~11월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
-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

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

- 산림,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,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
- 농업, 임업 근로자 등 - 조경 및 제조작업자 등

쯔쯔가무시균 O.tsutsugamushi 의 매개체



털진드기 유충



풀숲 속 들쥐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이란?



- 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'작은소피참진드기'의 활동시기 (4~11월)에 야산이나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
- '작은소피참진드기'에 물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,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

흡혈 여부에 따른 형태



비흡혈 상태



흡혈 상태

Q

'작은소피참진드기'는 주로 어디에 서식하는가요?

-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, 시가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
-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서식합니다

Q

치명률은 얼마나 되는가요?

- 약 6%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

* 국내의 경우 '작은소피참진드기'가 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0.5% 이하로 분석되고 있음

쯔쯔가무시증 &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증상은?



쯔쯔가무시증

주요 매개체: 털진드기

- 발열, 심한 두통, 오한(감기와 유사)
- 가피(피부 딱지), 림프절 종대
- 감염 후 몸통 · 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났다가 1-2주일 후 소실됨
-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
주요 매개체: 작은소피참진드기

- 원인불명의 발열 (38°C 이상)
- 위장관계 증상: 오심 · 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
- 신경학적 증상: 피로감, 근육통, 어눌한 말 · 경련 · 의식저하 등
- 출혈증상: 혈뇨, 혈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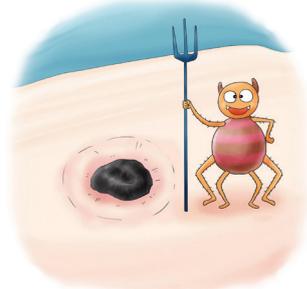
* 증상에 따라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할 수 있음

쯔쯔가무시증 ·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공통증상



- 발열

쯔쯔가무시증 특징적 증상



-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(피부 딱지) 형성

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?

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서 작업 [이하 '야외작업']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합니다
특히, 임업 종사 근로자 또는 장년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

야외작업

- | | |
|---|--|
| 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소매, 긴 바지,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(안전화)를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합니다 -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어 착용합니다 - 진드기 기피제를 작업복과 토시에 뿌립니다 |
|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풀밭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 - 휴식이나 음식을 먹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합니다 -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|
| 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이 끝나면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- 작업복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합니다 *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|



Q&A 자주하는 질문

2015 - 보건 - 552

Q [쯔쯔가무시증] 고령인 사람만 감염되는 것 아닌가요?

- 쯔쯔가무시균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

Q [쯔쯔가무시증] 에 걸린 사람은 격리 시켜야 하나요?

- 쯔쯔가무시증은 사람간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

Q [쯔쯔가무시증]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?

- 쯔쯔가무시증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
따라서 예방수칙을 지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

Q [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] 진드기에 물렸다면?

-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[며칠에서 10일간] 흡혈합니다
- 야외 작업 후 6~14일 이내에 38°C이상의 발열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나 피부발진, 벌레 물린 곳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

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

쯔쯔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: 질병관리본부 (www.cdc.go.kr), 보건소

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052.7030.643 / www.kosha.or.kr

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

가을철 야외작업시 긴옷을 착용하세요

「쯔쯔가무시증·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예방수칙 안내

